

울산-여수 화학산업 태풍에 흔들릴소나

금호그룹 계열사 피해규모 미미 ... SK의 합성수지 생산공장도 견재

9월12일 태풍 <매미>에 따른 석유화학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는 조업중단에 따른 시설피해 등 물적손실에 기회손실 및 재가동 비용 등을 포함해 피해액을 최대 50억~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중질유 분해공장과 4개의 정유공장 대부분이 9월13일 정상가동돼 조업을 재개했으며, 9월16일 UC공정도 재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나프타 분해공장 및 합성수지 공장은 태풍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9월15일 0시를 기점으로 조업이 재개 된 LG석유화학은 Ethylene, Butadiene, BTX, HDPE 공장 등의 매출 손해액을 총 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생산차질에 따른 수급문제도 LG화학 공급량의 부족분은 호남석유화학과 여천NCC에서 공급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G석유화학은 1일 생산능력 Ethylene 2000톤, HDPE 750톤 등을 보유하고 있어 1일 매출액은 4억원 정도이다.

S-Oil은 현재 공장 정상화가 60-70%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공장 정상화 수준을 80%로 파악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됐던 Xylene 센터는 현재 정기보수 기간이어서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됐던 금호그룹 계열사는 금호석유화학의 여수 합성고무 공장이 12일 20시부터 15시간 동안 가동중지돼 9200만원의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최근 재고량이 많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던 상태로 공급에는 차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P&B화학은 공장의 실제 피해보다는 강풍에 따른 건물 외벽 손상 등 외적인 피해가 많다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열병합발전소는 침수에 따라 제 2공장의 스팀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14일 4시30분을 기점으로 열병합발전소 복원이 이루어져 현재 정상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호P&B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의 스팀 공급차질로 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총 340톤 중 120톤 생산라인이 중지됐고 일부 생산을 중단할 수 없는 제품은 정전이 발생된 후 3시간만에 정상가동이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밝혔다.

MDI를 생산하고 있는 금호미쓰이 관계자는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으며 금호미쓰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아하다”고 전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9/16>